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8, No.7 (August 2008) pp.13-30

시각언어로서의 교통경찰관복의 디자인특성 연구

-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

이 정 원* · 금 기 숙**
홍익대학교 패션디자인 박사과정*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Uniform As A Visual Language

- Focused on the U.S., England, Italy, France and Korea -

Jung-Won Lee* · Key-Sook Geu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08. 3. 11, 심사(수정)일: 2008. 5. 13, 게재확정일: 2008. 7. 18)

ABSTRACT

Visual language is 'a form of communication without text'. Visual language is one of the strongest methods to spread knowledge. Uniforms could be interpreted as a symbolic language that establishes order in this complicated modern society by placing identity and responsibility on each members of various different organizations. In light of the abo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will be to analyze police uniforms of U.S.A, Great Britain, Italy, France and Korea as a form of visual language and interpreting them in terms of visual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ideas behind the designs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s thereof.

Upon analysis of traffic police uniforms of each individual county mentioned above by separating each uniform's distinctive design, pattern, color, material and decoration based on visual factor, three characteristics of authority, dynamic functionality and friendliness were derived from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country's distinctive uniform design. The traditional unique role of police in our society was to maintain social order as their nature inherently possesses characteristic of authority and preservation, but has since undergone transition in many countries to appeal to the broader public by incorporating friendliness and dynamic functionality.

Analyzing police uniforms in terms of visual linguistic sense requires a much more profound process of understanding beyond simple interpretation of configurative shapes. In conclusion, the true purpose of uniforms is to include and portray images of mankind's desire toward expressing ideas like 'mankind's bias toward existence beyond theirselves and the exercise of force through authority' and materializing such ideas into a physical form.

Key words: visual language(시각언어), visual design(시각디자인), uniform(제복), traffic police(교통경찰관)

Corresponding author: Jung-Won Lee, E-mail: insomnier@naver.com

Ⅰ. 서론

인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상적인 언어를 시각화하여 국가와 민족, 집단의 특성을 담은 상징물들을 만들어낸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복식을 통해 기후에 대비하거나 적의 침입에서 몸을 보호했으며,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상호 작용시, 착용하는 복식으로 상대의 신분, 지위,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식은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 이것은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복식을 착용하고 표현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국 기호를 선택하고 의미를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활동이 된다.

이렇게 목표하는 이미지나 특정 정보의 전달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식 또한 기존의 시각언어로서 다루어졌던 대표적인 것들- 예를 들면 표지판, 수화, 아이콘, 기업체의 로고 등과 공통된 특수성을 갖는다.

특히 제복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복잡한 사회로부터 질서를 세우는 상징언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국가, 계급, 조합, 단체 등과 같은 일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그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착용자인 송신자와 대중인 수신자의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상호의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복을 하나의 의미집약적인 시각언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복이 일반적인 복식보다 강력한 합목적적 이미지전달이라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복을 하나의 시각언어로서 인식하고 시각디자인의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는 것은 그 원리의 이해이며 또한 그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객관적 시각에서 경찰관복의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그가 속한 국가의 가치관과 미적감성을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교통경찰관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많아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가 된다.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복의 시각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둘째, 각 국가의 교통경찰관복이 시각언어로서 어떠한 의미전달을 하는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의복에의 응용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한국 등 5개국의 교통경찰관복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일반적 고찰

1. 시각언어의 개념 및 정립과정

〈디자인 사전〉에서는 시각언어(visual language)를 "문자를 제외한 시각적 의사전달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시각언어는 1920년대 바우하우스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바우하우스의 추상주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조형언어를 시각언어로 다루었고, 그 이론적 기초는 모홀리 나기(Moholy Nagy)와 게오르기 케퍼스(Gyorgy Kepes)에 의해 확립되었다. 모홀리 나기는 시카고디자인연구소에서 「The New Vision」과 「Vision in Motion」을 편찬하였는데, 전자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전문화 교육에 대항해서 회화, 시 그리고 음악에 이르는 제 예술을 통합하는 전인교육 이념을 제시하였고, 후자에서는 사물에 대한 이해 방법으로서 움직이는 대상을 실제와 시각적 표현의 양쪽에서 동시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모홀리 나기에 따르면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특별한 표현의 방법에 의해 자극되고 대상의 움직임을 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케퍼스는 모홀리 나기의 업적을 이어받아 1944년 「Languag of Vision」을 간행함으로써 시각언어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케퍼스에 따르면 우리는 혼란된 시각환경 속에서 시각상(visual image)이라 부르는 통일된 실제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시각적 형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모든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은 동적인 통일의 과정인 조형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선, 면, 명도, 색상, 비례와 같은 시각 요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구성을 갖춘 시각적 형태가 되어 단어,

구, 문장과 같은 통합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시각언어는 인간의 능력을 재결합하고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서 재형성하는 강력한 방법들 중의 하나로서, 이는 다른 어느 전달 매체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나기는 시각언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시각적 표현이 사물 이해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반면, 케퍼스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곧 시각언어가 인간의 지식을 재통일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나기와 케퍼스 이후 시각언어론은 조형예술 분야에서 예술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시각적이며 언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각디자인 분야의 보편적 이론의 기반이 되었다. 형태나 색채와 같은 시각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지성(知性)을 매개로 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람의 감성(感性)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으로서 그 보편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각언어는 범세계적이며, 오늘날 민족적 감수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국제성을 옹호하는 경향과도 잘 부합된다.

인본주의 심리학 (프로이트심리학, 형태심리학, 지각심리학)의 발전은 시각예술의 이해와 분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꿈과 언어사용이란 점에서 접근한 프로이드의 연구는 시각언어의 개념정립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프로이드 심리학은 인간을 보이지 않는 심리상태를 가지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이후로는 시각예술을 보는 관점도 인간의 감각, 특히 '시각'을 통한 주체적이고 자의적인 해석활동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이전시대 외적인 대상을 어떻게 닮게 그려내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각예술을 구분하던 것이, 망막을 통해서 입력된 이미지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상황 즉, 개개인의 심리상태가 영향을 주는 해석단계를 거쳐, 손을 통해서 다시 출력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시각예술을 보는 관점의 이러한 변화는 점차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예술', '시각전달' 등 인간의 감각을 핵심적인 구분의 축으로 놓는 이해방식 및 용어의 발전을 낳게 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은 상징의 개념을 전개시켰고, 이는 외연과 내포의 상징체계 즉, 지시하는 대상을 자의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언어적 측면이 시각예술에도 적용됨을 알게 하였다. 이렇게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두는 시각예술을 인간의 상징체계의 표현방법으로 이해하며 시각표현의 언어적 접근을 한걸음 진보하게 하였다.

이후 발전된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고 이해하였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시지각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신비화 되어오던 예술가들의 표현과정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따라서 시각표현에 있어서도 범위를 확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1)]

최근의 언어학은 언어를 독립된 한 분야 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인간의 생활과 무의식에 밀착된 행위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언어학이 추상적인 언어(langue)보다는 언어활동(langaged)에 주목할 것을 역설하며, 언어야 말로 인류보편의 체계가 아닌 가장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정신활동임을 강조한다. 현대 언어학의 이러한 움직임에서 볼 때 시각이미지의 표현을 또 하나의 인간의 언어활동으로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시각언어를 통하여 일반언어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총체적이고 감성적인 정신활동의 흔적을 추적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예술분야 뿐 아니라, 언어의 학문적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복의 개념 및 기능

제복은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집단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지정된 복장을 말하며 유니폼이라고도 한다. Roach & Eicher는 유니폼의 어원을 'uniform: one form, all like'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하나의 형태, 즉 똑같은 복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근본적으로 유니폼은 집단에 대하여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수단으로 고안되어졌다.' 고 하였다.[2)] 제복은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으며, 집단 안에서는 연대의식을 높이고 집단 밖에서는 직업·계급·역할 등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의 강약이나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획일적으로 정해진 복장은 모두 제복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상에 나타난 신분이나 계급을 서열화한 복장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의복제도는 제정하는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대두하는 신흥계급은 그것을 교란시킴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과시해 왔다.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있어 복장은 제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자율적 임의성에 의한 차이점을 수반하는 복장인지, 또는 타율적으로 강제된 일정형식의 것인지에 따라 비제복과 제복의 개념상의 기본적인 차이가 생긴다. 제복은 수인복(囚人服)을 강제의 극한으로 보고, 계급구분에 의한 집단조직과 질서 있는 통일을 요구하는 군복 등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을 보이며, 학교·스포츠 클럽·직장 등의 제복에서는 강제도가 낮은, 이른바 생활상에서의 일시적인 제복의 형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제복의 기능은 동화(同化)와 구별이라는 이율배반의 성질에 지배되어 통일·위신·스노비즘(snobbism:속물근성) 등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제복은 그 대응어인 민중복이나 시민복과는 무관계하게 고립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간에는 형식상에서의 상호 교류가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제복은 시민복에 특정한 표장(標章)을 가하여 발전시키는 일이 많으며, 거꾸로 시민복 또한 제복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한다. 좋은 예로서 현대복의 합리화나 간결화에 영향을 끼친 스포츠복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사회학자 조셉(Joseph)과 알렉스(Alex) 또한 제복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첫째, 집단 구성원을 상징한다.

둘째, 어떤 사람의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모든 다른 역할에 대한 정보를 감춘다.

셋째, 한 개인을 집단 구성원으로 증명함으로서 즉 집단을 대표하고 집단에 대한 각자의 행동을 위한 책임감을 부과해 줌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역할을 합법화 시킨다.

넷째, 제복은 착용자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징함으로서 개성을 억누르며,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통제정도를 상징한다.

다섯째, 제복은 집단 경계를 한정하고, 집단 목표를 증진하며, 역할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의 문제를 다룬다.[3)]

3. 경찰관의 일반적 고찰

1) 경찰관의 개념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이 라틴어로 진화한 것으로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多義的)인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police'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작용 또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가리키는 단어로 축소되었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사회공공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하는데 범죄의 예방·제지 및 수사·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한다.

2) 경찰업무의 특성

경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행정조직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국가사회의 존립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찰조직은 강한 통제력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찰조직은 약화되어야 하는 이율배반적 측면을 가진다. 경찰의 특수성으로는 돌발성, 시급성, 직접성, 위험성, 조직성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경찰업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위험성

경찰관은 인간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처가 요구 된다. 경찰의 존재이유는 폭력과 위협과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더욱 명확해 진다. 따라서 경찰은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명령, 강제 등 경찰권의 발동이 필요하고 실력행사를 할 때가 많아 무기를 휴대하게 된다.

(2) 돌발성

일반 행정기관은 일정한 여건 하에서 대부분 알려진 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건의 주체를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조직 관리는 이러한 돌발적인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민첩성과 전체적인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3) 기동성

경찰의 업무는 대부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곤란하여 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기동성은 법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범인의 체포와 증거물 확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권력성

경찰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윌슨은 이와같은 권력적 요소가 경찰에 대한 반응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 하였다.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시민을 지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5) 조직성

경찰은 그 조직에 있어서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해관계는 시민에게 미치기도 하여 사건의 위험성에 따른 경찰조직의 기동성, 협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급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6) 정치성

경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직무할당, 승진, 전보, 채용, 징계 등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경찰자체의 냉소적 태도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객관성, 성실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불신임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또한 경찰의 조직과 지휘권의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경찰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치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7) 고립성

맥킨스(Colin McInnes,)는 경찰관이 일반시민으로부터의 고립감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립감은 경찰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법 집행에 대한 협력의 결여, 경찰업무에 대한 몰이해 등에서 비롯된다.

(8) 보수성

경찰은 사회 공공직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본질상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며 내부로부터의 진보, 개선은 극히 완만하기 때문에 때때로 정치적인 수단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개혁이 행하여 진 적이 많다.[4)]

3) 교통경찰관의 개념 및 특성

교통기관이 점차 발달하여 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교통상의 위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을 구출하며 도로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것이 교통경찰활동이다.

교통경찰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교통체중과 교통사고 등의 교통문제를 교통규제·정리·단속 등 경찰작용을 통하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교통경찰은 교통의 발전에 주안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의 발달에서 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미리 제거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에 그 주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교통경찰관은 타 분야의 경찰관에 비해 기술

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빈번히 다룬다. 자동차에 관한 충분한 지식 없이는 교통단속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가 곤란하므로 자동차의 구조·기능·운전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교통규제를 계획하고 신호기 등 기타 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누구나 도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므로, 보행자이든 운전자이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 된다. 교통경찰관은 교통정리의 현장이나 안전 계몽운동, 교통단속 현장을 통하여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경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오늘날 교통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따라서 특정 경찰관의 이미지는 교통경찰 전체에 대한 평가, 나아가서는 경찰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찰활동 평가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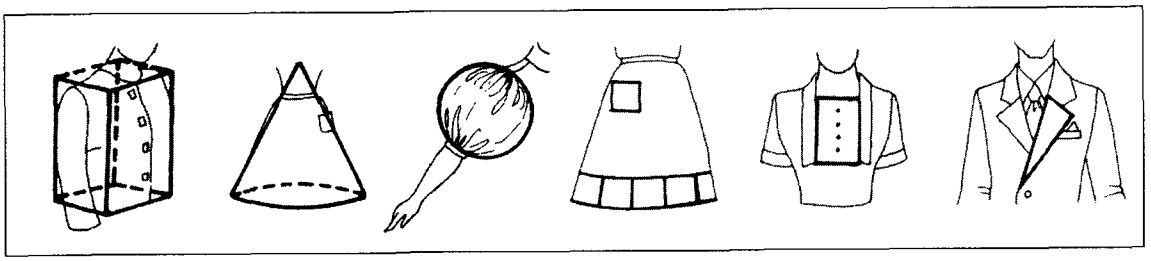
Ⅲ. 교통경찰관복의 시각적 분석

1. 분석을 위한 시각적 요소

시각언어는 모든 조형 예술분야에 있어서의 구성요소는 시각어(時角語)이며 그 요소들이 언어성이라는 객관적 구조를 통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이론이다.[6] 따라서, 시각언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우리는 조형요소들을 하나의 구조 속에 놓여 진 성분들로 이해하고, 이것에 조형논리를 응용하여, 조형성의 이해에 있어서 탈신비화, 객관화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시각표현의 언어적 접근에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시각표현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각자 고유한 환경과 역사를 고려하는 과정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조형의 요소로 대표되는 형태 및 방향성, 색채, 재질의 부분으로 나누어 교통경찰관제복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아이템상의 특징은 본래 시각조형의 기본요소는 아니나 복식의 특수성상 품목 자체가 갖는 고유한 이미지가 있어 환경과 역사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차원에서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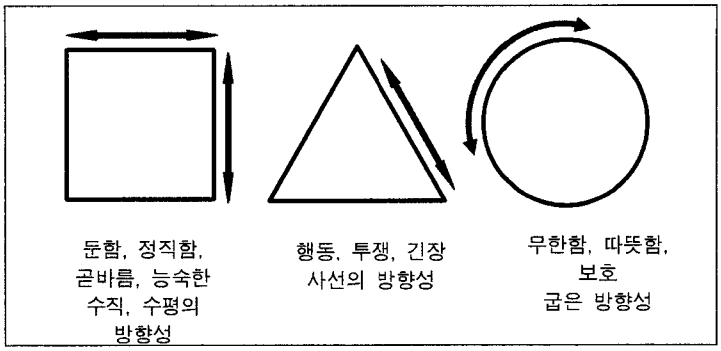
1) 형태 및 방향성

복식은 전체와 부분(전체적인 윤곽선, 팬츠나 스커트, 모자이 형태, 혹은 아이템이 서로 겹치면서 창조 되는 새로운 면)에서 특정한 선의 이미지나 도형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은 입체를 이루고 있으나 일정한 공간을 두고 바라볼 때 관찰자는 이를 평면적인 형으로서 인지하게 된다(그림 1)[7]. 형태는 점, 선, 면을 기본요소로 하여 생성 된다. 점, 선, 면은 각각의 내적인 에너지의 원리와 현상적 특질을 지니며, 이러한 각 요소의 성격은 보다 복잡한 형태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된다. 도형은 물론 그 자체로 어떤 개념으로써의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쾰러(W. Köhler)가 〈형태심리학〉에서 밝히듯, 도형의 중추적 정서는 공통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니스(D.A. Donis) 역시 원과 정사각형, 정삼각형의 예에서 인간은 연령이나 성별, 지식정도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정사각형은 둔함, 정직한, 곧바름, 능숙한의 의미가 관련되고, 삼각형은 행동, 투쟁, 긴장, 원은 무한함, 따스함, 보호의 이미지를 갖는다 하였다(그



〈그림 1〉 복식에서의 도형이미지 표현 예

출처: 복식의 시각디자인



〈그림 2〉 D. A. Donis의 형태에 따른 감정효과 분석

〈표 1〉 형태의 방향성에따른 심리효과

변 이	모 양	물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
수직 vertical		길고 좁아 보임 각진 신체 강조	직접적, 인격, 정확, 위엄, 긴장, 경직, 확실, 남성
수평 horizontal		짧고 넓어 보임 각진 신체 강조	조용함, 평정, 휴식, 고요함, 수동성, 평온
사선 diagonal		수직에 가까운 : 길어보임 수평에 가까운 : 넓어보임 45°: 주위 선들의 영향에 따라 다름	드라마틱, 들떠있음, 불안정, 활동, 공격
만곡선 Restrained wave		신체 곡선을 다소 강조	부드러움, 완만, 유연하나 억제된, 수동적, 미묘 완전한 호가 아닌 불규칙한 경우 : 더 우아함
완전곡선 Full curve		신체 곡선 강조 야윈 신체를 보완	역동, 여성, 억제되지 않은, 풍부, 젊음, 활동, 힘
굴 곡 bent		직선효과와 곡선효과를 결합	자연, 힘 , 우아
톱니모양 jagged		각진 것을 강조	돌연, 신경질, 분주, 불안정, 불규칙, 발작, 흥분
파도모양 wavy		둥근 것을 강조 각진 것을 완화	여성, 파동, 부드러운, 흐르는 듯한, 감각, 유연, 불확실

출처: 복식의 시각디자인

림 2). 또 개개의 형태는 기본적이고 의미 있는 시각적 방향을 나타낸다. 정사각형은 수평과 수직의, 삼각형은 대각선의, 원은 구부러지는 방향이다. 각각의 방향들은 강하게 연상되는 의미를 지니며, 시각적 전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표 1)[8].

이러한 관점에서 의복이 단순화된 도형으로써 의미될 때: 이는 각각의 형태 속에서 내재해 있는 내적 요소, 즉 긴장, 에너지를 외화 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형태의 현상적 특성을 조형 과정에서 의미와 결합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2) 색채

색은 어떤 사물의 용도를 정의해 줄 분 아니라 각

사물이나 개개인의 개성 혹은 강조점을 부여해 주며,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색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는 상징이나 구분을 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색은 사회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색채학 분야에서는 색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색각문제(色覺問題)로부터 색채에 대해 느끼는 인상·조화 까지도 포함하며 연구하였는데 색상, 대비, 배색을 통해 온도감, 무게, 크기, 거리, 감정효과 등을 도출 해 낼 수 있음을 피력한다. 디자인의 요소 중 색채는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시각요소로서, 인지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보다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색채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색채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객관화 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질감

일반적으로 소재의 시각적 질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미적 측면에서 소재를 평가한다. 패션소재의 시각적 질감은 눈으로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으로, 소재의 빛 반사력(광택)과 표면 요철 정도, 밀도 등에 의해 달라진다. 소재의 질감과 색채의 감성에 관한 김미지자의 연구에 따르면 소재의 질감에 따른 감성의 연구는 시각적 요소에 의해 90%이상 결정되므로 소재의 시각적 이미지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시각적 질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촉각적 질감을 결정짓는 요소보다 더 다양하며 미세한데 있다고 해석하였다.[9] 따라서 관찰자가 지각하는 감성은 실제 소재의 물리적 특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재에 대한 질감을 감성차원, 즉 이미지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데이비스(Marian L. Davis)에 의하면 같은 형태의 의복이라 할지라도 시각효과가 다른 소재로 만들어지면 의복들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우아한', '캐쥬얼한' 의복의 분위기는 매끄러운 표면의 광택 있는 소재와 거칠고 광택이 없는 소재의 특성과 연관되어있다고 한다 (표 2)[10].

이와같이 소재의 재질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지각자의 감성반응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표 2〉 소재의 질감에 따른 분위기 형성

분위기	표면 특성	촉 감	빛 반사력	가능한 직물
스포티한	약간 매끄러운, 따뜻한	단단한, 치밀한, 유연한, 견고한, 탄력있는	불투명한, 반광택, 반사력이 없는	개버딘, 피케, 데님
청 순	약간 매끄러운, 따뜻한, 변화하는	뽀뽀한, 부드러운, 유연한, 단단한	불투명한, 광택 없는, 반투명, 투명	신합성소재, 강엄, 튤, 아일렛, 다후다, 갤러코
세련된 우아한	매끄러운, 미끄러운 차가운, 약간 거친	나긋나긋한, 얇은, 고운, 탄력있는, 유연한, 호사로운	반짝이는, 광택 없는, 반투명, 투명	사틴, 크레이프, 저지, 시폰, 벨벳
사무적인	약간 매끄러운, 약간 따뜻한	뽀뽀한, 단단한 치밀한, 견고한	불투명한, 광택 없는	개버딘, 중편성물, 소모직물, 브로드크로스
캐쥬얼한	약간 거친, 따뜻한, 까칠까칠한	부들부들하면서 단단한, 약간 거친, 유연한	불투명한, 광택 없는, 반투명한	코듀로이, 프란넬, 편성직물, 벨트직물

출처: 복식의 시각디자인

2. 국가별 교통경찰관복의 분석

1) 영국

(1) 형태 및 방향성

영국의 교통경찰관은 힙선 길이의 풍부한 여유분을 갖는 Bomber jacket과 역시 여유분이 넉넉한 팬츠를 착용한다. 상의의 견장과 직선적인 헴라인, 긴 수평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사띠의 형태는 인체를 직사각형의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풍부한 여유분이 인체의 골격과 근육 등 굴곡이 있는 것을 감추어 신체를 기하학적 형태로 확장되어 보이게 한다. 말레비치(K. Malevich)는 기하학적 사각형은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Abstraction'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사각형은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극한으로서 조형의 집약인 동시에 충실한 정신의 상징적 질서를 나타낸다.[11] 몬드리안 회화의 핵심이 되는 조형 요소에서 사각형을 채택한 동기를 살펴보면 수직, 수평선은 그가 말한 것처럼 "자연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형 요소"라는 것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사각형은 모든 자연에서 기본을 이루고 수직 수평선에서 끌어낸 형태이어서 조형물의 안정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또한 영국의 교통경찰관복은 총기가 재킷 내부로 수납 되면서 좌우가 완전히 대칭되는 형태를 보여 안정감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영국의 경찰을 상징하는 bobby hat은 그 상부의 형태가 완전곡선(full curve)를 이루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는 야위고 각진 신체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심리적으로는 '역동적인, 활동적인, 힘 있는'[12]의 이미지를 가진다. 또한 착용자의 신장을 극적으로 신장되어보이게 하여 수직(vertical)의 방향성이 갖는 심리적 효과인 '위엄, 힘, 엄격'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2) 색채

영국의 교통경찰관복은 제복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neon greeen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팬츠와 모자 등에서는 navy를, 셔츠에는 white를, 그 외 신발과 장갑 등의 부속품에서는 black을 사용한다. neon greeen은 채도가 매우 높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되며 활동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갖는다. 안하임(Arnhein)은 〈Art and Visual Perception〉에서 '색채의 특수성은 명도보다 선명함에 의존한다.'고 언급한다. 긴 파장의 빨간색군, 주황색군, 노란색군은 선명한 정도가 크며 한색계로 갈수록 선명도는 적어진다. 선명한 채도는 그 색이 움직여서 관찰자에게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그 물체는 팽창되어 보인다. 이러한 물리적인 효과로 인하여 고채도의 neon greeen색상은 '용기, 흥분, 활기찬'의 심리적 효과를 갖게 된다. navy는 이와는 반대로 심리적으로 '평정, 위엄, 차분한, 남성스러운'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I.R.I의 단색 image scale에 따르면 neon greeen은 동적인며, navy는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반사띠에서 사용된 white, cyan blue 그리고 트리밍과 소품의 black을 보조색으로 하여 명도차가 강한 대비를 보이게 되고, 배색 image scale상에서 '다이나믹한'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질

형광 재킷에서 사용된 주 소재는 광택이 있는 고어텍스 소재로 인공적인 시각효과를 보이며 반사테입의 플라스틱성 재질과 함께 하이테크적 이미지가 돋보인다. 그러나 팬츠에 사용된 울소재가 부드럽고 평평한 질감을 가져 시각적으로 품위 있어 보이도록 한다.

(4) 아이템상의 특징

영국경찰의 제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소품은 'Bobby hat'으로 이름 붙여진 모자이다. 영국사람들은 경찰을 친근하게 "보비(Bobby)"라고 부르는데, 이 별명은 1829년 영국경찰을 창설한 로버트 필(1788-1850) 경의 애칭에서 따온 것이다. bobby hat은 반사띠의 체스판 무늬와 함께 전통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나 활동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전기와 경찰봉등이 부착된 벨트가 지급되나 재킷 안에 보이지 않게 착용하여 대민적 차원에서의 이미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발은 군화형의 워크부츠를 착용하며 기본 아이템으로 드레스셔츠와 울 함유량이 높은 베이식 테일러드 팬츠를 착용하여 전통적이고 품위 있는 형태를 보인다. (표 3)

2) 이태리

(1) 형태 및 방향성

힙선 길이의 풍부한 여유분을 갖는 bomber jacket은 곤봉과 총기 등을 수납한 벨트를 재킷 위로 착용하여 확장 된 X형의 실루엣을 보인다. 견장은 빳빳한 심지가 들어가고 그 둘레에 크리미시(cremisi)로 명명 된 파이핑을 하여 어깨의 선이 매우 단단한 직선형을 이룬다. 재킷의 색과 명도차가 많이 나도록 부착된 반사테입은 사선형의 샘 브라운 벨트(Sam Brown belt)와 함께 재킷의 내부공간을 다각도로 분할해 준다. 이때 생긴 사선형의 다양한 각면들은 시각적 강조를 증가시켜 복잡하고 과장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대각선 방향은 안정성이라는 생각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것은 가장 불안정한 방향의 힘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자극적인 시각의 방식이다. 그 의미는 위협적이고 문자 그대로 불안한 것이다.[13]

팬츠는 다소 폭이 좁으며 구두를 많이 덮지 않는 베이식 스트레이트 테일러드 팬츠를 착용하는데 앞주름을 강하게 잡고 팬츠의 측면에도 크리미시를 넣어 직선형의 형태감이 더욱 강조된다.

모자는 전통적인 군복에서 유래한 장교형의 모자를 착용하는데 전면 상부의 크라운이 높아 전체적으로 유연한 굴곡을 이룬다. 전면부의 강한 곡선형과 후면부의 만곡선의 방향성이 결합된 형태는 '힘 있는'의 이미지와 '유연함'의 이미지를 모두 함유한 품위있는 형태감을 형성한다.

구두의 형태는 폭이 좁은 곡면을 이루고 있어 스트레이트 팬츠와 연결되어 날렵해 보이며, 상대적으로 상반신을 더욱 부각 시켜 남성적 권위를 돋보이게 한다.

(2) 색채

재킷은 navy가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며 크리미시의 purple색, 단추 및 계급장의 gold, 반사띠의 white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 navy와 white, light blue grey의 배색은 근접배색으로 무난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나 모자의 앰블램과 기타 부속물에 gold와 purple을 사용함으로써 고전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다.

(3) 재질

재킷의 두께감 있는 고어텍스 소재와 벨트에 코팅된 반사재질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이나 팬츠의 울 소재, 크리미시의 벨벳, 그리고 휘장류에 다양하게 사용된 gold재질은 전통적인 품위를 보여준다.

(4) 아이템상의 특징

전통 장교형의 모자, 샘 브라운 벨트, metal gold의 계급장과 단추 등 전통적인 군인의 이미지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구두에 있어서는 섬세한 디테일의 옥스퍼드형정장화를 착용해 품위를 강조한다. (표 4)

3) 프랑스

(1) 형태 및 방향성

길이가 짧은 재킷은 밑단을 신축성 있게 조였으며 유틸리티 팬츠를 착용해 전체적으로 직선적이기 보다는 탄력있는 곡선형의 실루엣을 보인다. 그러나 소재의 부피감과 어깨의 견장, 팬츠 상부의 큰 포켓 등은 착용자를 근육질로 보이게 하는 등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준다. 모자는 간편한 스포츠캡의 형태이나 정면부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재킷의 포켓도 그 형태가 감추어지고 단지 플랩의 수평선만이 드러나 절제된 안정감을 보인다.

재킷과 팬츠의 외곽선은 정형화 되지 않은 자유로운 선을 이루는데 이것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자유로움을 돋보이게 한다.

(2) 색채

navy가 주조색을 이루고 있으며 모자에서 신발까지 유사한 명 채도의 색상을 사용 해 형태의 시각적 분리가 없어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준다. 이것은 실루엣에도 영향을 주는데, 외부환경과의 격리감을 주어 완전히 닫혀진, 명확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조색으로는 모자와 구두, 기타 보호장비에서 사용된 black, 반사띠와 각종 패치의 white등, 무채색계열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강인하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보인다. 의복류의 색상이 절제

되고 저명도인 것은 상대적으로 마크의 색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국기의 blue, white, red의 색감이 뚜렷이 부각되어 모던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3) 질감

재킷과 팬츠 모자 모두 광택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빳빳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금욕적이고 튼튼해 보인다. 소품에 있어서도 휘장류를 자수로 대치해 광택감을 절제하고 있다.

(4) 아이템상의 특징

평소엔 군화형의 워커를 착용하며 특수한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용하는 등, 실용적이며 기동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휘장류는 대부분 자수로 대치하여 경량화와 간편성을 도모하고 캡형식의 스포츠모자를 착용하는데 이 또한 실용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표 5)

4) 미국

(1) 형태 및 방향성

실루엣과 내부 디테일에 있어서 각진 형태가 두드러진다. 모자의 형태를 보면 정통 장교형의 스타일을 차용하고 있는데, 형태면에서 8각을 이루는 크라운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각들이 전체적으로 원형의 둘레상에서 구성되었다는 점과 각면을 만들기 위한 구성상의 절개선들은 곧 이 형태를 곧 방사의 원리를 가진 형태로써 보이도록 한다. 방사는 강력히 관심을 통제할 수 있는 원리로 가장자리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형을 더욱 확장 되 보이게 한다. 포켓의 디테일에서도 기본 사각형의 끝을 사선형으로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면들은 수직, 수평선이나 곡선형에 비해 인공적이고 날카로우며 공격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갖는다. 재킷은 엉덩이 윗부분을 살짝 가리는 길이로 외곽선이 직선형을 이룬다. 또한 부피감이 강조된 소재를 사용하고 색이 절제되어 신체의 확장성, 명료성을 더해준다. 정면, 측면, 후면부에 다양한 포켓을 부착한 유틸리티 팬츠를 착용하며 다리 상단에 위치한 사선형의 총기 벨트를 둘러 복잡한 각면을 만들어 낸다. 수납공간을 보면 포켓의 전면부에 주름을 넣은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기능상으로 실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형태상에서도 볼륨 있는 입체 형태로서의 실루엣을 만들어낸다.

(2) 색채

재킷과 벨트, 신발에는 black을, 모자와 팬츠, 셔츠에는 navy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덩어리감을 보여주며 엄숙하고 딱딱하며 치밀한 남성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한다. 휘장류 에서도 silver와 white, navy컬러만을 사용해 제복 전체적으로 절제되고 다소 무거운 배색효과를 보인다.

(3) 재질

재킷과 팬츠, 모자 모두 광택감이 느껴지지 않고 빳빳한 질감을 보여 전체적으로 실용적이고 튼튼해 보인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 있는 총기와 수갑, 커다란 휘장 등은 금속성의 재질감을 가지고 있어 단단하고 치밀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4) 아이템상의 특징

장교형의 모자, 유틸리티 팬츠, 무기류, 군화형의 워커 등 군복에서 차용한 이미지와 아이템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벨트의 수납력이 매우 높으며 총기가 허벅지 부분에서 사선형의 벨트로 한번 더 고정되어 무기 자체의 존재감이 더욱 강조된다. (표 6)

5) 한국

(1) 형태 및 방향성

한국 교통경찰관복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좌우의 형태가 일치되는 대칭형을 이룬다. 지각의 형태심리학(Gestalt)이론에서는 우세한 조건의 심리적인 구성을 "good"으로 정의한다. 이것이 지향하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정서적으로 최소한의 자극, 가장 단순한, 최소의 복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좌우 양측의 대칭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도달된 상태를 묘사한다. 이러한 대칭형은 시각적인 구성에 이용될 때, 가장 질서 잡히고 조직적인 효과를 가진다.

한국 교통경찰관은 힙선 길이의 풍부한 여유분을

갖는 bomber jacket과 역시 여유로운 테일러드 팬츠를 착용한다. 그러나 곤봉과 총기 등을 수납한 벨트를 재킷 위에 착용하고 있어 확장된 X형의 실루엣을 보인다. 상의의 견장과 직선적인 헴라인, 힘 있는 소재는 허리에 밸트를 착용함으로써 직사각형의 공간이 일부 축소되고, 외곽선이 사선형의 방향성을 보이도록 한다. 사선은 수직선의 엄격함, 견고함의 이미지와 수평의 휴식, 평온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불안정하고 활동적인 역동성을 갖는다. 그러나 재킷안의 대부분의 부속물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여 형의 분절감 없이 단순하고 간결해 보인다. 팬츠는 앞주름을 강하게 잡아 직사각형의 형태감을 강조시켜 견고한 남성성의 이미지 돋보이게 한다.

(2) 색채

한국의 교통경찰관복의 재킷은 light grey가 주조로 사용되고 있다. grey는 black과 white를 포함한 모든 색상의 혼합 상태로, '중용, 침착, 위엄, 다재다능한'의 이미지를 갖는다. 모자, 팬츠, 패치 등에 주로 쓰인 navy는 '차가운, 수축된, 조용한'이라는 정신적 효과를 가져, 심리적으로 '평정, 위엄, 차분한, 남성스러운'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에바 헬러(Eva Heller)에 의하면, 남자의 46%, 여자의 44%가 푸른색을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하였고, 그 외에도 푸른색은 호감도, 조화도, 신뢰도, 실용성 등의 측면에 있어서 녹색을 앞서는 것은 물론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색에서도 금색을 앞섰다. 'blue'는 일반적으로 최고의 능력과 업적을 상징한다.[14] 경찰복에세 쓰인 navy는 명도가 매우 낮아 black에 가깝게 보이지만 채도가 높은 암청색으로 사용되어 청명한 느낌을 준다. 강조색으로는 모자의 앰블램과 밸트에 쓰인 yellow컬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밸트의 금속성 재질과 함께 황금의 색에서 연상되는 고귀함, 전통성의 이미지를 갖는다. 전체적인 배색을 보면 무채색과 저명도의 색상들이 사용되어 차분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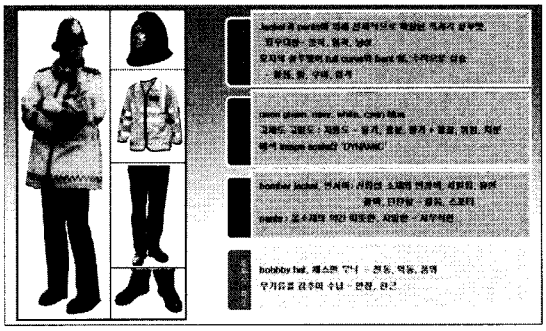
(3) 재질

재킷의 재질은 은은한 격자 무늬가 있는 반광택의 기능성 직물로 다소 '인공적'이고 '현대적'이며, 모자의 빳빳하고 무광택인 재질감은 실용적이고 수수한 이미지를 보인다. 팬츠는 평평해 보이는 울소재를 사용해 전통적이고 품위 있는 형태감을 보인다.

(4) 아이템상의 특징

외근모자가 스포츠캡 형태로 되어 있어 활동적으로 보이나, 베이식 테일러드 팬츠와 옥스퍼드형의 정장화를 착용해 전통적인 이미지를 병행하였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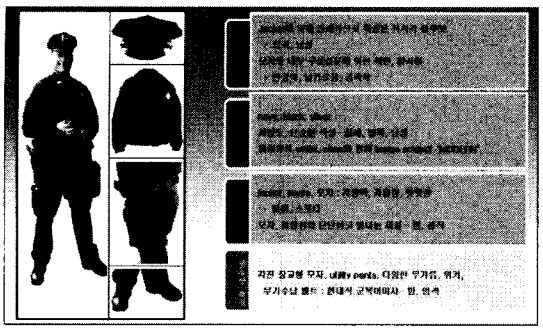
〈표 3〉 영국의 교통경찰관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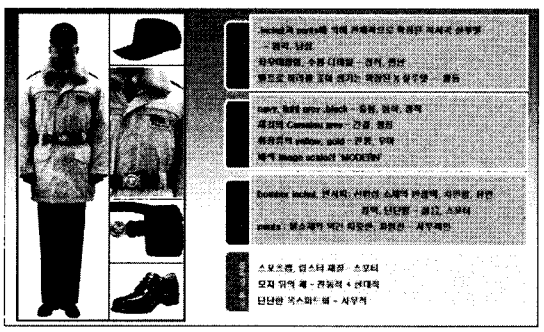
〈표 4〉 이태리의 교통경찰관복 분석

〈표 5〉 프랑스의 교통경찰관복 분석

〈표 6〉 미국의 교통경찰관복 분석



〈표 7〉 한국의 교통경찰관복 분석



Ⅳ. 교통경찰관복의 시각의미

1. 위엄성

앞서 경찰관의 업무특성에서 보았듯,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행하는 권력집단이다. 때문에 위엄 있는 시각적 표현은 경찰제복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만 한다.

위엄의 이미지는 공격성, 무력으로 상징되는 군복의 이미지에서 형태적 특성을 빌어온 것과 '초자아'를 지향함으로써 근대 권력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한 것, 그리고 장식미에서 그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장식미는 산업사회 이전 아리스토 텔레스의 데코르(decor)개념을 도입한 군주의 장엄미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가 있는데, 전통적인 군복의 이미지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군복의 이미지와 절제미는 모두 남성 우월적 사고에서 그 원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성 개념을 뛰어 넘는 다양성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남성, 상업, 엘리트계급이라는 절대권력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서 여전히 위엄의 형상을 찾는 고정관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 군복의 이미지

군복의 이미지는 강력한 무력집단의 상징적 의미를 표방한 것이다.

군복의 디테일 중 특히 위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훈장이나 견장을 볼 수 있다. 에폴릿(epaulet) 이라 불리는 견장은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검으로부터 어깨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부속품이었으나 계급이나 부대, 군대의 역사를 표시하는 장식적인 수단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엄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역할을 바꾸게 되었다. 원래 에폴릿은 한쪽 어깨에만 있던 것이 18C말에 이르러 2개가 한 쌍이 되어 양방향에 술 장식이 달리게 되고 현대에 와서 더욱 직선적으로 단순화 되었다. 이외에도 볼륨감을 형성하고 각진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포켓, 샘브라운 벨트, 팬츠의 옆선에 길게 배색된 트리밍, 정모 등도 전통적인 군복의 형태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정형화 된 딱딱한 어깨선과 과장 된 앰블렘, 장교모, 금단추와 벳지등의 형태는 권력자로서의 권위감을 강조하고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틸리티 팬츠, 워커, 아일렛장식 등 좀 더 기능적으로 현대화된 미국의 군복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2) 절제성

19세기 근본적인 기술발명과 함께 권력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기술적 향상이 진행되었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이루어 광범위한 식민지를 소유하게 된 영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티(modernity)의 성립을 보였다. 이때 요구되어지던 '초자아'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지향하여 현실이나 쾌락보다는 완정성을 지향했다. 푸꼬(Michel Foucault)는 새로운 권력수행의 양식으로서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의 변화, 국가체제

의 상층부에 권력이 위임되는 양식의 변화보다는 인간의 신체에까지 도달되는 미세한 권력의 존재방식을 상정하였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신체(body)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닌 역사적 개념이다. 그 개념은 신체를 억제하고 투입하며 감시, 훈련하고 고문하며 일을 수행하고 의식을 거행하여 기초를 발하는 주체로서 정치적인 장(field)이 존재함을 알리고, 새로운 권력의 형태와 지식의 실시를 통해서 생산되는 권력 및 감시의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출현이자 긍정적인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다.[15] 신체를 통한 권력의 생산성에서 분명한 기술적 현상은 권력의 경제학(economy of power)에 의해 정착되었다. 푸코는 신체의 행동범위를 잘게 부수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기제를 통해 순응적인 신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막강한 힘으로 작용해 우리의 행위와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권력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나 지식의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이러한 철학은 그 전부터 동경해 오던 귀족의 문화생활, 의복양식 등을 나름대로의 품위와 실용성을 겸비한 복식문화로 새롭게 형성시킨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의 business suit는 이때의 원형을 계승시켜 온 것이다. 경찰관 제복에서도 역시 이러한 절제미를 받아들여 위엄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어깨와 가슴을 강조한 실루엣, 광택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면과 양모를 위주로 한 소재의 활용, 절제된 색감, 딱딱하지만 형태 안정성을 좋게 하는 구두 등은 근대적 권력개념의 남성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3) 장식성

의복의 발생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잘 알려진 신체장식설은 예술적인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충동에서 발생한다. 장식한다는 것은 매력적이게 하는 것이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복의 경우 장식물이란 의복 자체가 된다. 장식이란 순수한 신체적 필요 이상으로 신체 위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말한다.

교통경찰관 제복이서는 장식적 요소들이 트로피즘(Trophyism)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과 용기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몸에 가공이나 장식하는 행위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념설'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장식만을 목적하는 것은 아닌, 이익을 위해 착용하던 것이 결국에는 의복의 발전까지 가져온 것이라고 보는 설이다. 착용자의 힘, 용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장식을 하거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냥꾼은 자신의 용맹을 보여주기 위해 사냥물의 가죽, 뿔, 이빨, 발톱을 의복과 장신구로 제작하여 착용하고, 이것은 많은 도살을 뜻한다. 이와 같이 '나는 얼마나 용감한가.'를 나타내는 전쟁 메달, 또는 '나는 얼마나 멋있는가.'를 나타내는 다른 명예로운 표시들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견장과 버클의 장식성, 금속성의 단추와 휘장류, 상의에 부착하는 술장식 들이 이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부속물 자체의 화려한 장식성은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위엄'과 관계되는 '장엄'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 되었던 개념이다. 이것은 넓은 도량(magnanimitas, magnimitudo animi)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찮음(pettiness)과 과도함(excess)의 중간에 있는 덕을 의미한다. 이 덕은 적절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데코르(decor)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장엄과 데코르는 이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활발하게 토론되었다.사회적 지위와 그에 적합한 형태의 사물에 대한 관심은 고대와 중세 양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알베르티(Battista Alberti)는 1450년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소비를 선덕으로 보았다. 군주에게서 장엄은 예술 뿐 아니라 예식과 행사에서도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결국, 장엄은 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과 부유함, 그리고 군주의 정치적인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장엄과 데코르의 개념은 건축, 미술, 음악, 복식 등의 형식에서 널리 응용되었다. 경찰관제복에서 보이는 벨벳트리밍이나 체스판 문양, 금속부품의 장식성, 샘브라운 벨트, 보비 햇, 복잡한 모양의 옥스퍼드화는 장식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위엄성을 고취시킨다.

2. 역동성

교통경찰 제복에서보이는 역동적 시각효과는 특히 교통상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고취감 형성 및 기능성이 요구되는 구성상의 조형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되었던 경찰업무의 특성에서도 보이듯, 돌발성과 기동성에 대한 특수성은 주요한 항목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경찰관복에서는 기타 경찰관복과는 차별화 되는 특수한 기능들을 첨부하였다. 로돌리(Lodoli)는 확실한 기능이 없는 부분은 구조물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재료의 속성 자체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 성향을 띤다. 그러므로 기능주의의 디자인은 비장식성, 과거에서의 분리, 그리고 형태, 비율, 선과 재질에 충실한 특징을 갖는다. 교통경찰관복에서는 특히 기능중심의 의복류인 스포츠룩과 유사한 구성상의 요소들을 사용 하고 있다. 우선 소재 상에서, 스키의 보급과 방수, 방풍소재의 개발은 의복류의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인도(Visibility)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재귀반사지, 마이크로 프리즘 소재, 형광성의 색채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1960년대 최초의 우주탐험이라는 이슈가 결합되어 나타난 패딩과 퀼팅 방법을 이용한 우주복스타일, 기능적인 형태의 포켓류, 움직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인체공학적 디자인도 교통경찰관의 제복에서 다각도로 응용되었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들은 다양한 곡선형의 실루엣과 명채도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는 배색, 비비드한 색조, 광택성의 재질감을 형성해 역동적인 시각효과를 갖는다.

3. 친근감

경찰관은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의 집행 이외에도 대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경찰관은 업무특성상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복식 이외 행동양상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친근하다(familiar)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눈에 익은, 잘 알고 있는, 마음편한, 허물없는, 익숙해진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경찰관의 경우는 친근감을 주기위해 무기를 오버코트 안쪽으로 수납하거나 걸음걸이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등 시각적, 감성적 효과를 중요시 한다. 또한 한국의 포돌이 마크도 경찰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교통경찰관 제복에서는 친근감의 효과를 주기 위해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형태와 소재를 사용하였다. 복식 및 제품에 있어서의 과장된 형태는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과장이 없는 단정한 형태를 취하였다. 좌우대칭형은 안정감을 주는 주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이것은 단지 시각적 특성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 두발로 땅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는지 알기 위한 균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평형상태(equilibrium)는 인간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강한 시각적 참고(reference)이며,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서 시각적 판단을 하는 기본이 된다. 경찰제복에서 보이는 사각형, 수직선, 수평선의 활용 역시 앞장에서 언급했듯 형태의 시각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색채에 있어서는 강렬하지 않은 색감과 유사배색, 톤 온 톤 배색으로 안정감을 표현하였다. 순색 및 완전한 black과 white의 배색은 현실상 존재하지 않는 색으로 심리적으로 인공적인 느낌을 주어 친근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반면 톤 온 톤 배색은 일정한 색상에 무채색을 더한 색상을 배색하는 원리로 자연에서 보이는 명암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코튼, 울, 가죽 등 천연직물의 사용과 요철감 없는 평평한 표면, 광택이 제한된 재질감은 안정감과 단정함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표 8)

V. 결론 및 제언

시각언어(visual language)는 문자를 제외한 시각적 의사전달 수단이다. 적절한 시각적 요소들로 만들어진 시각언어는 이미지가 가지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특성에 의해 문자언어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복식 또한 입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사회적 정체성

〈표 8〉 교통경찰관복의 시각의미

시각적 요인	디자인 특성				
	위엄성			역동성	친근감
	장식성	군복의 이미지	절제성		
형태 및 방향성	• 곡선형 • 대각선 • 방사형 • 전통적 디테일	• 어깨를 강조한 X, Y실루엣 • 각면 • 수직적 상승 • 대각선 • 방사형	• Y실루엣 • 사각형 실루엣 • 직선형 • 좌우대칭형 • 비장식성 • 명확한 형태감	• 완전곡선형 • 자유곡선형 실루엣 • 대각선 • 방사형	• 좌우대칭형 • 사각형 실루엣 • 수평선 • 비장식성
색채	• navy • gold • purple	• black • navy • gold • silver •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	• 한색계의 색상 • navy • black • white •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 • 한정된 색상의 배색	• 고채도의 색상 • 고채도 고명도와 저명도의 배색 • 연속적인 색의 병치	• grey • navy • 근접 배색 • tone on tone 배색
재질	• 모직의 부드러운 질감 • 유연한 질감 • 은은한 광택 • 호사로운 금속성	• 빳빳한 질감 • 치밀한 질감 • 신장된 질감 • 무광택 • 금속성 • 가죽	• 평평한 표면 • 빳빳한 질감 • 치밀한 질감 • 무광택	• 신합성의 반광택 • 치밀함 • 유연 • 단단함 • 매끄러움 • 반사성	• 천연직물(울, 코튼)의 질감 • 평평한 표면 • 무광택
적용된 품목	• 옥스퍼드화 • 크라운이 높은 보비 햇, 장교모 • 체스판 문양 • 벨벳 트리밍 • 샘브라운밸트 • 견장 • 단추 및 휘장 • 장식적인 버클 • 술장식	• 앞주름을 살린 테일러드 팬츠 • 유틸리티 팬츠 • 오버코트 • 장교모 • 워커 • 샘브라운밸트 • 장비벨트 • 견장 • 단추 및 휘장	• 앞주름을 살린 폭이 좁은 테일러드 팬츠 • 드레스 셔츠 • 단색조의 오버코트 • 옥스퍼드화 • 자수휘장	• 유틸리티 팬츠 • 신합성 소재의 오버코트 • 반사띠 • 스포츠캡형 모자 • 체스판 문양 • 자수휘장 • 장비벨트	• 총기류의 내부수납 • 테일러드 팬츠 • 단색조의 오버코트 • 드레스셔츠 • 옥스퍼드화 • 스포츠캡형 모자

을 대변하며, 인간의 언어를 대신하여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전달체계가 되는데 특히 제복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복잡한 사회로부터 질서를 세우는 상징언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교통경찰관복을 하나의 시각언어로 보고 형태, 색채, 재질 등 시각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교통경찰관복의 본질적 이해와 시각언어로의 활용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시각표현의 언어적 접근에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시각표현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각자 고유한 환경과 역사를 고려하는 과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에 교통경찰관복의 분석에서는 제복에서 표현된 형태 및 방향, 색채, 재질, 품목별 특징을 시각적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국가별 분석을 통해 위엄성, 역동성, 친근감의 디자인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위엄성은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었는데 특히 군복의 이미지는 이태리와 미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졌다. 이태리는 전통적인 군복의 형태감을 차용해 장식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보여 전통적 권력의 개념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현실적 차원에서의 무력의 행사를 보여주는 시각적 원리들과 소품을 사용하였는데 색채의 사용이 매우 절제되어 있어 이태리와는 반대로 근대적 권력의 이미지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대적 권력의 이미지는 한국과 프랑스의 제복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었다.

역동성은 물리적인 첨단화의 요구에 의해 시각화 되었는데 영국의 경우 색상과 재질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는 형태상에서, 한국은 재질감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친근감은 감성적인 요구에 의해 시각화 되었는데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 색채와 형태로, 영국은 형태와 소품의 효과적인 연출로 그 이미지를 적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좌우대칭의 형태나 근접 배색 등을 사용하였으나 총기류의 부각된 수납방식이나 예각이 두드러지는 디테일의 사용으로 친근한 이미지가 반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국가별 교통경찰관복을 분석해본 결과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역동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 권위적인 것과 친근한 것 등 상반되는 개념의 이미지들이 지속적으로 중복되어 도출되었다. 이것은 경찰이 가지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인 보수성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관을 더욱 친근한 대상으로 어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대민적 서비스가 강조되는 현상을 보인다. 어떠한 개념을 더 차용하고 아닌지는 각 국가의 현실적 상황과 가치판단의 기준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가는 한방향의 이미지만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보다는 반대되는 요소들을 섞어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이미지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제복의 형태는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캐주얼하게 보이나 색상을 지극히 제한하여 사용하였기에 절제된 안정감을 보이고, 이태리는 전통 군복의 형태감을 차용하였으나 유사색계의 배색이나 난색계의 벨벳을 사용하는 등, 부드러운 시각요소를 부여하여 권위적인 이미지를 품위 있게 중화시켜 주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팬츠나 셔츠, 구두 등에서 다소 보수적인 형태의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최근 스포츠웨어에서 선호된 립스파크 소재를 도입하여 제복의 고답적인 재질감에서 벗어나고, 외근모를 스포츠캡 형태로 바꾸어 주는 등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모자와 다른 복식요소들이 매우 전통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를 형성하지만 재킷에 사용된 형광색, 비비드한 체스판 무늬등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매우 역동적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용된 조형 요소와 부속물이 매우 공격적인데 색채 역시 black과 저명도의 배색으로 구성되어 강인한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켜 주었다. 이것은 강인한 무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제복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단지 현시적 이유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태리의 전통 장교복의 품위 있는 형태감, 전통적인 보비 햇, 프랑스의 인라인스케이트 경찰의 이미지는 단순히 권력과 기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외에도 시민이나 관광객에 대해 유희적 의미의 시각효과를 주기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시각언어로써 교통경찰관복을 분석할 때 단순히 조형적 형태감을 넘어서 '남성과 초자아적 존재에 대한 편애, 무력에 의한 권력의 행사' 등 내재해 있는 이데올로기를 이미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가사상에서 덕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긴다는 덕치주의가 말하듯, 친근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경찰관 제복을 분석할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통계가 모든 이의 기호를 반영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제시된 요소에 대한 심리적 효과 역시 모든 이에게 완벽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제복은 착용자의 분위기나 착장방법에 따라서 시각적 효과가 크게 달

라질 수 있으나, 그러한 변인을 최대한 절제하고자 제복을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제복은 적절한 시각적 요소와 원리를 사용함으로서 실제의 기능 이상의 목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기에 그 효과적인 사용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루돌프 아른하임, 김정오 역 (1997). 시각적 사고. 서울: 이화문고, pp. 50-52.
2) M. E. Roach & J. B. Eicher (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hon Wiley & Sons, Inc., p. 127.
3) N. Joseph and N. Alex (1979). *The Uniform: A Sociological Perspective.* N.Y.: Dubu pp. 122-128.
4)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pp. 32-34.
5) 위의 책, p. 46.
6) 박선의 (1990). 디자인사전. 서울: 미진사, p. 171.
7) Marian L. Davis, 이화연 외 역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p. 108.
8) Marian L. Davis, 위의 책, pp. 66-68.
9) 김미지자 (1989). Texture와 Colo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 청구논문, p. 67.
10) Marian L. Davis, p. 230.
11) Bruno Munari (2004). 정방론. Milano, Japanase Cobright by Bijutsu, p. 62.
12) D. A. Dondis (1976). 시각인식력의 입문서. 서울: 기문당 p. 54.
13) 위의 책, p. 60.
14) Eva Heller, 이영희 역 (2002). 색의 유혹. 서울: 예담, pp. 39~82.
15) Smart barry, Foucault (1983). *Marxism and Critique.* London: R.K.P, p. 109.
16) 이광래 (1995). 미셸푸코. 서울: 민음사, p. 205.